

## 중앙아시아에서 드리는 2월 사역 소식 (2024년)

한국에는 예년과 다른 한파와 눈으로 추운 겨울을 지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곳 중앙아시아는 상대적으로 기온이 그리 낮지 않은 겨울을 지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곳은 겨울이 우기라서 춥고 눈이 많이 내려야 설산에 쌓인 눈이 건기인 여름에 농토를 적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 걱정이었지만 1월 하순부터 눈이 자주 내리고 있어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기후 변화와 유래없이 급변하는 세계정세로 인하여 전쟁의 소식이 끊이지 않고 한국에까지 그런 불안감이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이런 가운데에서도 변함없이 저희와 이곳 사역을 위해 기도과 사랑으로 함께 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후원자 여러분의 가정과 소속된 모든 영역에서 주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은혜가 넘치기를 기도하며 24년의 첫 소식을 드립니다.

### 1. 현지 공동체와 문서 사역

현지 공동체에는 다수의 한국인 가정과 외국인들이 참석을 하며 다양한 모습으로 공동체의 사역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현지인 지도자들도 5-6명의 건강한 지도자들이 잘 세워져서 설교와 찬양, 주일학교와 청소년 사역, 그룹모임 등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보내주신 겨울 아동용 신발을 공동체의 아이들과 주변의 어려운 학교 학생들, 고아원을 방문하여 나누어주고 함께 시간을 보내며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실내가구 목수로 일하는 형제도 여전히 설교로 봉사하기도 하고, 공동체의 여러 가지 사역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얼마전에는 기계톱에 손가락 사이를 깊이 베여서 8바늘을 꿰매고 회복중인데 인대가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지만 주문을 받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상처가 잘 회복되고 형제와 그 가정이 사역자로도 잘 세워지기를 위해 기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랫동안 기도하고 계신 N 자매가, 얼마전에 저희 부부를 초대하여 함께 식사를 하고, 작업장을 돌아보며 지난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지난 10여년 동안 의상 디자이너로 기술을 배우고 일하면서, 저희를 통해 재봉틀을 지원받아 시장에서 작은 의상 맞춤 및 수선가게를 하고 있었는데 시장에서 발생한 큰 화재로 모두 전소되어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감사하게도 작년에 사업기금 지원 프로젝트에 지원했는데 통과되어 지원을 받았습니다. 집에 있는 창고를 개조하여 작업장을 마련하고 재봉틀과 필요한 기구들을 구입하여 다시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후원해주셨던 분들에게 다시 시작하게 된 상황과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남편 없이 홀로 두 아들을 키우며 살아왔는데, 큰 아이는 지난 여름에 미술전대를 졸업하여 일을 하다가 엄마와 함께 작업실을 공유하며 작품활동을 시작했고, 작은아이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현재 엄마 일을 도우며 배우고 있습니다. 두 아들 모두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오면서도 교회를 떠나지 않고 성실하게 활동하며 믿음이 성장하고 있어 감사한 마음입니다. 아직은 개인 맞춤 주문이 많지 않지만 아이들도 모두 졸업하고 함께 도와주고 있어서 그간의 고생에 비해 현재를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귀한 이들의 가정을 위해 그리고 일터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2. 한국어 사역

고려인 문화회관에서는 저희 드림 아카데미가 문을 닫은 이후 작은 규모이지만 고려인 자녀들과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국어 과정을 열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려인 교사들이 초급반을 맡고 저희 기관의 한국어 사역자 한명이 중급반을 맡아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어 외에도 고려인 자체적으로 합창반, 고전, 현대 무용반, 사물놀이 등 한국의 전통 문화와 관련된 다양한 과정도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진흥장학재단을 통해 15~20 여명의 고려인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이들의 학업에 도움이 되게 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올해로 14년째 장학사업을 하고 있는데 금년에도 진흥장학재단에서 장학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고려인 협회와 상의하여 2월에 장학생들을 선발 확정하여 장학금 전달식을 가지려



합니다. 한국 유학과 취업으로 한국을 가려는 학생들과 성인들이 지속적으로 한국행 비자를 신청하여 오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저희의 한국어 과정에서 오랜 기간 동안 공부하던 비카라는 학생도 이번에 한국외국어대학교에 전액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비자를 신청중입니다. 오랫동안 꿈을 가지고 준비해 왔는데, 이제야 본인의 꿈이 시작되어 기대가 큼니다. 한국어어 실력 뿐 아니라 전반적인 학업 능력도 우수한 학생인데 한국에서의 적응과 대학생활을 통해 잘 성장하기를 위해 특별히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3. NGO 사역과 기타 사역

‘밥상공동체 복지재단’을 통해 2023년도에도 고려인 35가정을 포함하여 10개 마을에 석탄을 지원하였습니다. 이번에는 탈라스, 이스쿨, 그리고 잘랄 아바드 지역의 작은 마을을 방문하여 석탄을 지원하였습니다. 도로와 행정구역상 외부와 고립되어 있는 오르토-토코이 지역의 학생들을 위한 통학버스 지원이 결정되어 얼마전에 17인승 미니버스를 구입하여 전달하였습니다. 예전에는 마을에 학교가 있었지만 주민 수가 줄고 지방 예산의 문제로 폐교가 되어 15km정도 되는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어려움이 마을의 숙원 과제였습니다. 밥상공동체 재단의 대표와 지역 대표들이 작년에 방문하여 이곳 사정을 듣고 모금을 하여 이번에 총 3대를 구입하여 이곳에 2대, 그리고 토르아이그르 라는 마을에 1대를 기증하게 되었습니다. 전달식을 하는 동안 부모들과 학생들이 함께 나와 차에 올라보기도 하며 기쁨을 나누었고, 감사의 마음을 전해왔습니다. 학교가 있는 인근 시에서 운전관리 기사의 급여와 이동시 필요한 연료비, 수리비는 시와 마을의 예산에서 충당하기로 하였습니다.



저희와 함께 일하던 졸도쉬와 츠나라 가족이 12월에 미국으로 갔습니다. 미국 오리건주에 러시아권 사람들을 위한 교회가 있는데 키르기즈인들이 출석하고 있어 그들을 위한 사역자를 찾고 있던 중 졸도쉬를 소개받아 초청을 했습니다. 지난 봄에 미국 입양아 동행자로 비자를 신청해서 5년 가족비자를 받게 되었는데 그 계획은 취소되었고 결국 비자만 받게된 상황이었습니다. 여행비자이긴 하지만 이 가정에 어떤 길이 열릴지 기대하며 지냈는데 이 부부의 은사에 맞게 돌봄 사역자로 가게 되어 함께 감사하며 환송했습니다. 초청한 목사님 부부의 도움을 받으며 어린 세 자녀와 함께 잘 적응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츠나라가 영어도 하고 운전도 할 수 있어서 정착에 큰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세 자녀가 학교생활에도 잘 적응하고 이 부부가 키르기즈인들을 잘 섬기며 공동체를 세워가는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12월 초에 츠나라와 함께 준비하여 여성모임을 가졌습니다.

츠나라 동네(시골에서 올라온 정착민 마을) 부인들을 초청하여 “당신은 특별한 존재입니다”라는 주제로 강의와 활동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열악한 환경속에서 살고있는 이들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정기적으로 모임을 가질 계획을 하며 첫모임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미국으로 떠나게 되는 상황이 되어 이 모임이 어떻게 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이 일을 할 수 있는 현지 리더가 연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기도해주세요.

미래를 알 수 없지만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인도하실지 기대하며 미국으로 떠나는 졸도쉬 가정을 보며 저희가 이곳 들어본 적도 없는 키르기즈스탄이라는 나라로 떠나올 때 가졌던 마음과 저희의 모습을 회상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를 축복하며 환송해 주셨던 가족을 비롯한 모든 분들을 떠올리며 감사했습니다. 저희가 이곳에서 다른 나라로 보내는 일을 처음 경험하며 만감이 교차했지만 축복하며 보낼수 있었습니다.

어디서든 우리 모두는 나그네로 이 땅에서 사는 것인데 사는 동안 우리의 돌아갈 본향을 그리며 함께 갈 이들을 찾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중앙아시아에서 정간사 & 김간사 드림